
저자 (Authors)	조수동
출처 (Source)	철학논총 75 , 2014.1, 475-499(25 pages)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75 , 2014.1, 475-499(25 pages)
발행처 (Publisher)	새한철학회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60790
APA Style	조수동 (2014). 원광의 호국정신과 불교. 철학논총, 75, 475-4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8 10: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광의 호국정신과 불교*

조수동(대구한의대)

[한글 요약]

원광은 중국에 유학한 후 대승불교를 본격적으로 신라에 도입하였다. 그의 저술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사상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원광의 활동은 호국활동과 대중교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호국활동으로는 세속오계의 제정과 결사표 등 외교문서의 작성, 백고좌법회 개최 등이 있다. 세속오계는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의 젊은이들이 지켜야 되는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백고좌 법회는 호국경전인 『인왕경』을 강독하는 것으로 인왕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고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고 한다.

원광은 점찰법회를 개최하여 우매한 민중들을 교화시키려 하였다. 여기에는 그의 여래장사상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여래장사상은 원광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보이며 2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리고 원광은 전통신앙 간, 또는 불교와 전통신앙 간의 갈등을 불교의 자비와 관용의 정신에 의해서 화해시키고 있다.

주제분야 : 불교, 한국불교

주 제 어 : 원광, 세속오계, 점찰법회, 여래장, 화해

* 이 논문은 2013년 12월 27일 청도군에서 개최한 2013년 화랑의 날 기념 포럼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 수정한 것이다.

1. 서언

원광법사에 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당의 『續高僧傳』, 신라의 『고본 수이전』,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등이 있다.¹⁾ 그런데 이들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아 원광의 생애나 사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들 자료에 근거하면 원광법사는 인격이 매우 고매하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등의 세속 학문에도 박식하였다. 『해동고승전』에서는 “그의 신기로운 기량은 크고 넓었으며, 밝은 지혜는 남보다 뛰어났다. 도교와 유교를 두루 섭렵하여 연구하였으며, 서책과 문장을 사랑하여 깊숙이 젖어들었다. 생각이 세상에 뛰어나고 고매하여 어지럽고 시끄러운 곳에 살기를 싫어하였다.”²⁾라고 하여 원광법사의 박학다식함과 인품의 고귀함을 말하고 있다.

원광법사는 중국에서 『성실론』, 『열반경』, 삼장, 수론, 『아함경』, 『반야경』, 『십대승론』 등을 배웠으며, 아울러 正念과 正定, 覺觀 등의 선정수행을 하였다 고 한다. 그리고 여래장 관련 저술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여래장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원광법사는 중국유학에서 돌아온 후 외교문서와 결사표 작성, 백고좌법회를 개최하고, 귀산 등에게 세속오계를 내려주는 등 호국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민중들을 위해서는 점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광법사의 생애나 세속오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³⁾ 특히 불교사상에 대해서는 점찰법회에 대한 약간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속고승전』은 당 道宣(596~667)의 저술이며, 『해동고승전』은 고려 고종 2년 1215년 覺誨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책이다. 『삼국유사』는 일연이 1280년 전후에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

2) 각훈, 『해동고승전』, 장희옥 역, 민족사, 1994. 190쪽.

3) 원광에 대한 주요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안계현, 「신라인의 세속오계와 국가관」, 『한국사상』 3, 1960. 이기백, 「원광과 그의 사상」, 『창작과 비평』 10, 1968. 김충렬, 「화랑오계의 사상배경고」, 『아세아연구』 14.4, 1971. 정병조, 「원광의 보살계사상」,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원, 1981. 신종원,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사상의 재조명』, 1991. 이종학, 「원광법사와 세속오계에 대한 신고찰」, 『신라문화』 7,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90. 이기동, 「신라의 화랑도와 가솔갑사」, 『가솔갑사지 지표조사보고서』, 1993. 최연식, 「원광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 12, 1995. 박미선, 「신라 원광법사의 여래장사상과 교화활동」, 『한국사상사학』 11, 1998. 박광연,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의미」, 『역사와 현실』 43, 2002. 신성현, 「원광의 세속오계에 대한 재고」, 『불교학보』 40,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03. 박미선, 「원광의 점찰법회와 삼계교」, 『한국사상사학』 24, 2005.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연구』 2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본 연구에서는 원광법사의 생애와 세속오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원광법사가 수학했던 불교사상의 내용과 원광의 전기를 통해서 보이는 화해정신, 점찰법회에 초점을 맞추어 원광의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원광의 생애와 유학

1) 생애

원광의 중국유학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원광에 대한 여러 기록 중 중국 유학 후 신라로 돌아온 기록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외 그의 출생이나 임종, 승려가 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유학에 대한 기록은 陳에서의 원광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하면 『속고승전』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연도 『삼국유사』 「원광서학」 조에서 당나라의 전기와 우리나라의 전기가 서로 달라 어느 것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어 『속고승전』과 『고본 수이전』 2가지를 모두 기록한다고 하고 있다.

『속고승전』 권13 「釋圓光傳」에 이하면 원광의 속성은 박씨이며, 진한의 신라 사람으로 건복 58년 주석하던 黃隆寺에서 99세로 세상을 마쳤는데, 당의 貞觀 4년(630)이라 하였다. 『고본 수이전』에서는 원광의 속성은 薛씨이며, 일찍 사문이 되어 30세가 넘어서 토속신의 지시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가 11년간 유학하고 돌아왔으며 84세에 입적하여 명활성 서쪽에 장사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해동고승전』에서는 원광의 속성을 설씨, 혹은 박씨라고도 하며, 신라 왕경 사람으로 13세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고 하고, 건복 58년(641) 99세에 병이 난지 7일 만에 맑고 간절한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단정히 앉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마쳤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면, 원광의 속성은 박씨 또는 설씨라 하여 정확하지 않다. 그의 출생연대는 사망한 나이에 따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속고승전』에서는 建福 58년, 당 태종 貞觀 4년에 99세로 사망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 진평왕의 연호인 건복은 53년에 끝이 나므로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만약 건복 58년설을 따르면 이것은 선덕왕 5년인 636년이 되고, 당 정관 4년은 630년이 된다. 원광이 99세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출생년도는 532년이거나 538년이 된다. 『고본 수이전』에서는 진평왕 52년인 630년에 84세로 입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출생연도는 547년이 된다. 『해동고승전』에서는 정관 4년인 630년에 99

세로 입적하였다고 하므로 532년에 출생한 것이 된다. 일연은 또 『속고승전』 정관 4년 사망설에 대해 마땅히 정관 14년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542년에 출생한 것이 된다. 이상의 여러 자료를 추적해 보면 원광의 출생은 530년에서 550년 사이이며, 630년에서 636년에 84살 내지 99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입적한 장소나 부도가 있는 지역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속고승전』에서는 그가 황룡사에서 입적했다고 하고 있는데, 일연은 이것을 황룡사의 오기라 하고 있다. 『고본 수이전』에서는 명활성 서쪽에 장사 지냈다고 하고, 『해동고승전』에서는 삼기산에 원광의 부도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일연도 “부도가 삼기산 금곡사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 삼기산은 원광이 중국 유학 전에 머물렀던 곳인데, 안강의 서남쪽에 있는 산이며, 금곡사는 안강의 서남쪽 계곡 즉 명활성 서쪽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광은 경주에서 입적했고, 그의 부도는 삼기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광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삼기산에 있었고, 귀국 후 그의 행적이 주로 보이는 곳은 가슬갑사이다. 『삼국유사』 「원광서학」 조에 따르면 원광은 귀국 후 가슬갑사에 머물렀고, 귀산 등에게 세속오계를 설법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해동고승전』에서는 원광이 운문사에 머물다가 가슬갑사로 옮겨갔다고 하고 있으며, 『운문사 사적기』에는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돌아온 후 황룡사에 머물렀고, 그 후 대작갑사로 옮겨와서 오갑사를 중창하고 3년 정도 머물다가 가슬갑사로 옮겨갔다고 하고 있다.⁴⁾

원광이 운문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해동고승전』이나 김척명이 지은 『원광법사전』에 나온다.

원광은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신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갑자기 바다가 운데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고 청하기를 “원컨대 스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을 짓고 한상 진리를 강의하여 제자로 하여금 좋은 과보를 얻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여 스님은 승낙하였다.

마침내 삼기산 옛집으로 돌아왔다. 밤중에 그 신이 와서 잘 다녀오셨는지 물었다. (스님은) 감사하며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에 힘입어 모든 일이 원대로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님은 해룡과 절을 짓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용도 지금 함께 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어느 곳에 절을 지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이 대답하기를

4) 진광, 「원광법사와 운문사의 인연」,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운문사원광화랑연구소, 2003, 100쪽,

“저 운문산에 까치들이 쪼아 놓은 땅이 있을 것이니 곧 그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스님이 신, 용과 함께 나아가 그 땅을 보고 곧 땅을 뚫더니 석탑이 나왔다. 바로 절을 짓고 운문이라 하고 그곳에 머물렀다.⁵⁾

원광이 해룡과의 약속에 따라 까치들이 쪼아놓은 땅에 운문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원광의 운문사 창건설을 부정하고 있다.

두 전기(『당전』과 『향전』)에 모두 鶻岬, 璃目과 운문의 사실이 없는데, 향인 金陟明이 향간의 말을 가지고 잘못 글을 윤색하여 『원광법사전』을 지어 함부로 운문사의 개조인 寶壤스님의 사적과 뒤섞어서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놓았다. 뒤에 『해동승전』을 편찬한 자도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한 자도 가감하지 않고 두 전기의 글을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다.⁶⁾

일연은 『속고승전』과 『고본 수이전』에 원광의 운문사 창건과 관련된 글이 없다는 것과 『원광법사전』을 지은 김척명이 운문사 창건자인 보양스님의 사적을 원광의 사적으로 만들어 원광을 운문사 창건주로 하였는데, 『해동고승전』에서도 이것을 토대로 원광이 운문사를 창건했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양이 운문사를 창건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보양이목」 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보양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의 용궁으로 들어가 금빛가사를 받고 아들 이목의 호위 하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신라에 돌아가면 鶻岬에 절을 짓고 살라고 하였다. 보양법사가 이곳에 와서 까치가 땅을 쪼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파 보니 전대의 절터임을 알고 이곳에 절을 세우고 작갑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뒤 보양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것을 알고 다섯 岬의 밭 500結을 합쳐서 이 절에 바치고 절 이름을 雲門禪寺라 하였다고 한다.⁷⁾

원광이 가슬갑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귀국한 후의 일이다. 원광이 머물렀다는 가슬갑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진광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운문산 동쪽 9천보 떨어진 곳에 있는 加西峴 북쪽 골짜기에 위치(『삼국유사』 「원광서학」 조), 둘째, 대작갑사 동쪽 9천보에 위치(『경상북도 청도군 동호거산 운문사 사적』), 셋째, 대작갑사 동쪽 9리 되는 곳에 위치(『조선 경상북도 청도군

5) 『해동고승전』, 194쪽.

6) 『삼국유사』, 「원광서학」.

7) 『삼국유사』, 「보양이목」.

운문사 사적』 설이 있다. 현재의 위치로는 운문면 삼계리나 운문면 신원리로 보는 견해⁸⁾가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광의 생애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연도 “이같이 당이나 우리의 전기에 의거해 볼 때 성은 박씨 또는 설씨라 하고, 출가함이 동이다 서다 함은 마치 두 사람 같으니 감히 상정할 수 없어 두 기록을 모두 남긴다.”⁹⁾라고 하고 있다.

2) 출가와 유학

『속고승전』에 의하면 원광은 중국에 유학하기 이전 속학을 공부하였으나 25세 때 중국의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서 불교 강의를 듣고 승려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즉 중국의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단행했으며, 중국에 도착 한 후 그가 평소에 의문시 했던 것을 공부했다고 하고 있다.

정신과 그릇이 넓고 활 트여 문학과 문장을 사랑함이 몸에 배었다. 도교나 유교를 비교, 섭렵하고 諸子百家와 역사를 검토하고 바로잡았고, 문장의 빛남으로 韓나라에 명성이 치솟았다. 博瞻함이 아직도 중원에 부끄러움이 있어 마침내 친척, 친구들과 헤어져 발분하여 발해의 깊은 바다를 건넜다. 나이 25살 때 배를 타고 금릉에 도착하였다. 陳나라는 세상의 文國이라 불렀다. 그런 까닭에 이전의 의문을 묻고 고증할 수 있었으며, 了義를 묻고 꺾하였다.¹⁰⁾

그리고 『해동고승전』에서는 13살 때 출가했다고 하고 있는데, 유학의 동기는 이타의 대승불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신이 말하기를 “지금 스님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남을 이롭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 들어가 법을 얻어 후학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중국에 가서 도를 배우는 것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지만 바다와 육지가 멀리 막히어 스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은 중국 유학에 대한 일을 자세히 일러 주었다. 그리하여 진평왕 11년(589년) 봄 3월에 마침내 진나라로 들어가 강사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찮은 말까지도 받아 적으며 성실, 열반 및 삼장 가운데 여러 가지 논을 전해 받았다.¹¹⁾

8) 진광, 「원광법사화와 운문사의 인연」, 86~92쪽.

9) 『삼국유사』, 「원광서학」.

10) 『속고승전』 제13, 석원광, 대정 50, 523쪽 하.

11) 『해동고승전』, 191~192쪽.

원광은 토속신의 권유에 의해 유학을 떠났는데, 그 목적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 利他的 佛法을 배우기 위해서 이다. 이타정신은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원광의 중국유학의 목적은 대승의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중국유학에는 토속신으로 상징되는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본 수이전』에서는 “처음에 승려가 되어 불법을 배웠다.”고 할 뿐 그가 언제 출가했는지, 출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해동고승전』이나 『고본 수이전』을 보면 원광은 출가 후 유학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광의 유학 시기에 대해 『속고승전』에는 단지 그가 25세 때 유학하였다고 하였다. 『해동고승전』에서는 진평왕 11년(589년) 3월이라 하고, 『고본 수이전』에서는 34세 이후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도 진평왕 11년 봄 3월 원광법사가 陳나라에 들어가서 불법을 구하였다고 하여 진평왕 11년 즉 589년에 원광이 진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 진평왕 11년(589) 설을 따르면 원광이 입국한 해에 陳(557~589)은 隋에 멸망하였고, 이 해에 원광은 수나라로 이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원광이 진에서 활동한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원광이 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을 고려하면 원광이 유학한 시기는 『속고승전』에 따라 25세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광의 중국유학은 남조의 陳에 머물던 시기와 수나라에 머물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陳의 수도 금릉에서 원광은 처음 속학을 공부하였으나 불교 강의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속고승전』에 의하면 원광은 성실학자의 강론을 듣고 출가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처음 莊嚴寺의 旻公의 제자의 강의를 듣고는 평소 짓어온 세간의 전적들이 이치로는 신을 궁구한다고 하였지만, 불교의 종지를 듣게 되자 도리어 그것이 씩은 겨자와 같았으며, 거짓으로 이름난 교를 찾았을 뿐 사실은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진나라 황제에게 上啓하여 도법에 귀의하게 하여 주기를 요청하니 칙령을 내려 이를 허가하였다. 이윽고 처음으로 머리를 깎고 곧 구족계를 받았으며, 두루 강원을 돌아다니며 嘉謀를 갖추어 다 배우고 현명한 말뜻을 옷깃에 받아 기록하면서 세월이 흘러도 이를 버리지 않았다.¹²⁾

원광은 불교 강의를 들은 후 지금까지 그가 공부한 것이 씩은 겨자와 같고, 거 짓된 것이었음을 알고 진의 황제에게 출가를 허락받아 불교에 귀의하여 사문이

12) 『속고승전』, 523쪽 하.

되었다는 것이다. 원광이 진의 수도 금릉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는 중국 천태종의 개조인天台智顚(538~597)가 활동하고 있었다.¹³⁾ 따라서 원광은 이 때 천태 지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수의 공격을 받아 진이 멸망하고 원광은 수나라 군사에 잡혀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수의 수도인 장안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는 거기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섭론학 등을 배웠다.

원광의 신라에로의 귀국에 대해 『속고승전』에서는 신라왕이 수나라 황제에게 원광을 보내주기를 여러 번 간청하여 황제가 칙령으로 후사하고 원광을 돌려보냈다고 하고 있는데,¹⁴⁾ 구체적인 귀국 연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고본 수이전』에서는 “진평왕 22년에 중국 조빙사를 따라 귀국하였다. 돌아오자 신에게 사례하려고 삼기산으로 갔다.”¹⁵⁾고 하여, 그가 진평왕 22년인 600년에 귀국하였다고 하고 있다.¹⁶⁾ 진평왕 22년 귀국설은 『삼국사기』, 『해동고승전』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하면 원광은 진평왕 22년인 600년에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원광이 신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국적인 환영을 받았다.

스님이 가신지 여러 해 만에 돌아오니 늙은이나 아이들 모두 기뻐하였으며, 왕도 또한 (스님을) 대함에 삼가 공경하여 마치 부처님처럼 우러러 모셨다.¹⁷⁾

원광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러 해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니, 늙은이에서 어린이까지 모두 기뻐하였고, 신라왕은 면대하여 경건하게 공경을 표시하고 성인처럼 우러러 보았다.¹⁸⁾

원광의 중국유학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원광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대승불법을 배웠고, 그것을 신라에 전파하여 신라에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陳隋의 시대에는 해동사람으로 바다를 건너가 도를 배운 자는 드물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아직 크게 떨치지 못하였다. 원광법사의 그 발자취를 이어서 서쪽으로 가 배우려는 자가 끊이지 않았으니 원광이 이에 그 길을 열어 준 것이다.¹⁹⁾

13) 지의는 575까지 금릉의 외관사에서 주석하였고, 585년부터 5년 동안은 금릉에서 강설하였다.

14) 『속고승전』, 524쪽 상.

15) 『삼국유사』, 「원광서학」

16) 『삼국유사』, 「원광서학」

17) 『해동고승전』, 194쪽.

18) 『속고승전』, 524쪽 상.

19) 『삼국유사』, 「원광서학」

원광 이전에도 중국에 불법을 구하려 간 승려로는 覺德과 明觀, 安弘 등이 있었고, 이들이 불사리와 불교경전을 신라로 가지고 왔지만, 신라에 본격적인 대승 불교 시대를 연 것은 원광이라 할 수 있다. 원광의 뒤를 이어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불법을 배우러 가게 되고 이후 신라는 불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3. 호국활동과 세속오계

원광은 신라에 귀국한 후 대승경전 강의와 대중교화, 외교문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 대승경전에 대한 강의는 『고본 수이전』에 “법사가 중국에서 처음 왔을 때 조정의 군신들이 정중히 여겨 스승으로 삼으니 항상 대승경전을 강론하였다.”²⁰⁾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광은 뛰어난 문장력으로 牋, 表, 啓, 書 등 국가의 외교문서 작성에 관여하였다.²¹⁾

세속생활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승려인 원광이 이같이 외교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은 당시 신라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의 하나로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수나라에 청병하는 글인 乞師表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에 “진평왕 30년(608)년에는 고구려를 정벌코자 隋나라에 청병할 때 왕명에 의해서 결사표를 썼다.”²²⁾ 라고 하고, 『고본 수이전』에는 “이 때 고구려와 백제가 항상 국경을 침범하니 왕이 근심하여 수나라에 청병하고자 하여 법사에게 청병의 글을 청하여 지었다. 수 황제가 보고 친히 30만의 군대로 고구려를 정벌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법사가 유교에까지 능통한 줄 알았다.”²³⁾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침입에 의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진평왕 30년(608) 2월에 고구려가 침입하여 8,000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같은 해 4월에는 고구려에 우명산성을 빼앗겼다. 원광은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진에 유학하고 있을 때 수나라의 침략에 의해 진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⁴⁾ 이 사건에서 원광은 국가의 흥망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목격했던 것이다. 결사표를 작성할 때의 원광의

20) 『삼국유사』, 「원광서학」

21) 『속고승전』, 524쪽 상.

22) 『삼국사기』, 「진평왕」.

23) 『삼국유사』, 「원광서학」

24) 『속고승전』, 523쪽 하.

입장은 『해동고승전』에 다음과 같이 말해지고 있다.

진평왕 30년(608)에 왕은 고구려가 자주 침범하는 것을 근심하여 수나라에 군사를 청해 적국을 치고자 하였다. 스님에게 명하여 걸사표를 짓게 하였다. 스님은 “스스로 살기를 구해 남을 멸하는 것은 사문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빈도가 대왕의 영도에 살고, 대왕의 옷과 밥을 허비하고 있으니 어찌 그 명을 좇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곧 지어 올렸다.²⁵⁾

청병을 요청하는 것이 불살생과 자비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지만, 신라가 처한 현실 때문에 국가를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그의 호국불교관을 보여주고 있다. 원광은 신라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라라는 조국을 먼저 생각했고, 비록 승려로서 불법을 보호하여야 하지만, 국가가 멸망하면 불교의 존재 가치도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호국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원광의 호국활동으로는 호국경을 강독하는 백고좌 법회가 있다. 백고좌 법회의 개최사실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진평왕 35년(613)에는 황룡사에서 百高座를 베풀어 고승을 청해서 경을 설할 때 원광은 제일 상수로서 설법하였다.” “7월에 수나라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도착하여 百高座 즉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원광 등의 법사를 초청하여 경전을 설파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해동고승전』이나 『삼국유사』에도 있다.

백고좌 법회는 신라 진흥왕 때 고구려에서 귀화한 惠亮法師를 모시고 팔관회와 함께 처음 열렸다. 613년 황룡사에서 개최된 백고좌 법회에서는 원광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했다고 한다.²⁶⁾ 백고좌 법회는 나라의 지배 귀족들을 상대로 호국경전인 『인왕반야바라밀다경』을 강독하는 법회로 100명의 법사가 100高座에서 경을 강설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대표적인 호국경인 『인왕반야바라밀다경』에는 4가지 한역본이 있는데, 竺法護(266~315) 역의 『인왕반야경』, 鳩摩羅什(344~413) 역의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眞諦(495~569) 역의 『인왕경』, 不空(705~774) 역의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등이 그것이다.

『인왕경』은 보살이 佛果를 지키고 十地行을 지키는 인연과 호국의 인연을 교설한 것이다. 보살이 불과와 십지행을 지키고 같이 호국의 왕이 반야바라밀다를

25) 『해동고승전』, 198쪽.

26) 김복순은 원광의 『인왕경』 강설은 천태 지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연구』2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274쪽.

자기 정신화하고, 이 경을 수지 독송, 의해하는 것이 곧 국가를 보살피는 인연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에서는 호국의 인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국토가 어지러워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적이 와서 파괴한다. 이 때 그대들 왕은 마땅히 이 반야바라밀다를 수지 독송하라. 도량을 장엄하게 장식하고, 100불상, 100보살상을 모시고 100사자좌를 설치하고, 좌석 앞에는 갖가지 등에 불을 켜고, 갖가지 향을 피우며, 갖가지 꽃을 뿌리고, 의복, 외구, 음식, 탕약, 房舍, 床座 등 모든 공양물을 크게 공양하고, 매일 두 차례 이 경을 독송하라. 만약 대왕, 대신, 사부중이 이 경을 聽受 讀誦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면 재난이 곧 없어질 것이다. 대왕의 모든 국토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귀신이 있고, 또 이들의 헤아릴 수 없는 권속이 있어 그들이 이 경을 들으면 그대들 국토를 지켜 줄 것이다.²⁷⁾

반야바라밀다의 여법한 실천 즉 일체의 집착을 떠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자세와 같이 仁王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 경을 수지, 독송, 강설하면 각종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와 국가의 성쇠는 상호 연관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흥성하게 되면 불교도 흥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불법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군주와 국민이 있다면 그 국가는 부처님의 호위를 받아 흥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광의 호국에 대한 관념은 세속오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가솔갑사에 머물고 있던 원광에게 귀산과 추항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다. 이에 원광은 이들에게 불교에는 보살 10계가 있지만 세속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5계를 준다고 하고 있다.

원광법사가 말하기를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어 그것이 10가지가 있지만,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었으니 아마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렵다. 지금 세속의 五戒가 있으니 첫째는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써 하고, 둘째 아버지를 섬김에 효도으로써 하고, 셋째 친구를 사귀어 신의으로써 하며, 넷째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으며, 다섯째 산 것을 죽임에 있어서는 가려서 하라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귀산 등은 말하기를 “다른 것은 명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만 이른바 살생을 가려서 하라는 것은 아직 유독 깨닫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광이 말하기를 “육제일²⁸⁾과 봄, 여름에는 죽이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이 때를 가리는 것이고, 기르던 가축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소, 말, 닭, 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가 한 입도 되지 않는 것을

27)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제5권, 호국품, 대정 8, 840쪽 상.

28) 六齋日 : 여섯 갯날, 8,14, 15, 23, 29, 30일, 四天王이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며, 또는 약귀가 사람을 엿보는 날로 이 날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계를 지켜야 된다.

말한다. 이것이 물건을 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직 그 사용하는 것에 많은 살육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속의 선한 계이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귀산 등은 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周旋으로써 받들어 감히 실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²⁹⁾

원광이 귀산 등에게 세속오계를 내려준 시기는 600년에서 602년 8월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원광에게 세속오계를 받은 귀산과 추항이 602년 8월에 일어난 백제의 아막성 전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원광이 내려준 오계는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有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이다. 이 세속오계는 충성, 효도, 신의, 용기, 자비 등의 덕목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켜야 되는 다섯 가지 도리 또는 생활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방편적 윤리이기도 하다. 원광은 귀산 등이 세속인이라는 점과 당시 신라가 전란 중에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윤리규범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세속오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해석이 있어왔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속오계를 화랑오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선근³⁰⁾, 이기백³¹⁾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세속오계를 화랑도의 근본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교적 관점에서 세속오계를 보는 견해이고, 셋째는 불교적 관점에서 세속오계를 보는 견해이며, 넷째는 세속오계가 삼교융합 사상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세속오계가 불교, 유교, 도교의 삼교의 조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섯째는 세속오계를 신라 고유의 미풍양속인 전통습속에서 찾는 견해이다.

세속오계는 내용상 비록 유교윤리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불교윤리 내에도 이러한 윤리 덕목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시불교의 윤리나 대승불교의 윤리설에 근거할 때 세속오계의 실천윤리는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다. 이같이 세속오계는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이다.

29) 『삼국사기』 열전, 「귀산」.

30) 이선근, 『화랑도』, 형설출판사, 1993, 15~16쪽.

31) 이기백, 「원광과 그 사상」, 신라문화연구소, 110쪽.(신성현, 「원광의 세속오계에 대한 재고」, 『불교학보』 40,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03, 108쪽 재인용)

4. 원광의 사상

1) 원광의 불교사상

원광에게는 『如來藏私記』 3권³²⁾, 『大方等如來藏經疏』 1권³³⁾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저술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저술의 명칭으로 보아 그가 여래장사상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원광이 중국에서 배웠던 불법은 『성실론』, 『열반경』, 『반야경』, 삼장, 數論 등이었고, 正念과 正定 등의 선정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³⁴⁾ 이러한 학문연구와 수행을 바탕으로 원광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는데, 그의 교화는 매우 뛰어났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 먼저 『성실론』을 通釋하고 마지막에 『반야경』을 강의하였다. 그의 강의는 청중의 심금을 울렸고, 깊은 감화를 주어 명망이 매우 높았다. 그리하여 그의 교화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하고 있다.³⁵⁾

또한 원광은 수의 수도인 장안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는 섭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 문제(581~604)는 많은 사찰을 건립하여 불법을 보호하고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통치하였다. 원광이 장안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섭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攝大乘論』은 無着의 저서로 眞諦三藏(Paramārtha, 499~569)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원광이 공부한 불교 경전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광이 중국 陳에서 가장 먼저 접한 불교이론은 『성실론』이다. 『성실론』은 26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Harivarman(訶梨跋摩)이 저술했고, 412년에 구마라집이 번역하였다. 이후 이 논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일어나 梁대에는 성실학파가 성립되었다. 成實이라 할 때의 實은 四諦를 말하는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논 의 목표라고 한다. 苦는 五受陰이고, 그 고의 因은 모든 업과 번뇌이며, 고를 멸하는 道가 8정도이다.³⁶⁾ 설일체유부가 현상계를 五位七十五法으로

32) 石田茂作,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136쪽.)

33) 永超, 『東城傳燈目錄』, 대정 55, 1152쪽 하.

34) 『속고승전』, 523쪽 하.

35) 『속고승전』, 523쪽 하.

36) 사성제설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강기선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강기선, 「화엄경」 「사제품」에 나타난 사성제의 의미에 대한 분석, 『철학논총』 제72집, 새한철학회, 2013, 9~23쪽.

분류하는 것에 비해 『성실론』은 현상계를 五位八十四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中道說, 二諦說, 我法二空說 등을 주요 가르침으로 하고 있다. 중도설은 일체를 有라 하면 常見에 빠지고, 일체를 無라 하면 斷見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斷常二邊을 여의는 것을 中道라고 한다는 것이다. 二諦는 世諦와 第一義諦를 말하는 것으로 오온은 원래 無이지만 世諦상으로는 有이다. 그러나 第一義에서 보면 그것은 空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차별이 존재하지만 실상에서 보면 차별은 없다. 我法二空說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我는 공이고, 오온이라는 범조차도 역시 공이라는 의미이다.

『성실론』을 번역한 구마라집의 문하였던 僧導는 『成實論義疏』를 저술했고, 그의 제자 道亮(397~465)은 『成實論義疏』 8권을 지었다. 역시 구마라집의 제자인 僧嵩은 북쪽 지방에서 『성실론』을 보급하였고, 남쪽 지방에서 활약한 성실학 자로는 僧柔(431~494), 慧次(434~490)가 있었고 이들의 제자 중에 梁의 3대 법사라고 말해지는 智藏, 僧旻, 法雲이 있다. 승민의 제자로는 寶淵(466~526), 僧喬(467~502?) 등이 있다. 원광은 금릉에서 승민의 제자에게 성실론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³⁷⁾ 하여간 『성실론』은 원광에 의해 신라에 최초로 도입 되었다.

둘째, 『열반경』은 소승의 『열반경』과 대승의 『열반경』이 있다. 소승의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의 입멸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최후의 大遊行, 다비, 사리의 분배 등에 관한 사건이 중심이 된다. 대승의 열반경 즉 『대반열반경』은 대승 불교 중기에 제작되었는데, 석가모니 부처의 입멸을 중심으로 하여 소극적인 열반관에서 벗어나 적극적 긍정적 열반관과 佛身常住, 一切衆生悉有佛性說 등을 주장한다. 불신상주설은 석가모니 부처는 중생제도를 위한 應身이고, 부처의 본질은 진리에 있다고 주장하여 진리의 부처인 法身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일체중생실유불성설은 현실적으로 중생계에는 많은 차별이 있지만, 차별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흉악한 악행으로 인해 성불하기 어려운 중생들도 불보살의 자비에 의해서 모두 성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열반경』은 東晉시대 法顯이 번역한 『大般泥洹經』, 北涼의 曇無讖이 번역한 『大般涅槃經』, 역시 北涼 시대 智猛이 번역한 『大般泥洹經』이 있다. 원광이 중

37) 최연식은 원광이 승민의 제자에게 강의를 들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당시 진의 수도에서 강의하던 智暉(541~617)을 지목하고 있다. (최연식, 『원광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 12, 1995. 19~20쪽.

국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는 이미 『열반경』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열반 학파가 성립되어 있었다. 남쪽 지방에서 활약한 열반학자로는 道生과 慧嚴(363~443), 혜엄의 제자 慧觀, 혜관의 제자 法瑗(409~489), 法瑗의 제자 僧宗(438~496) 등이 있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서 활약한 열반학자로는 曇延(516~588)과 그의 제자 慧海(550~613), 童眞(543~613), 法常(567~645) 등이 있었다. 北涼이 멸망하고 난 뒤 『열반경』의 학자들이 강남으로 내려오게 되어 강남에서는 『열반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원광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열반경』을 공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의 보덕화상이 『40권 열반경』을 강의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신라에서 『열반경』과 관련을 가진 최초의 승려는 원광이다.

셋째, 『반야경』은 대승불교의 초기경전으로 대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야경』에는 『팔천송반야(소품반야)』, 『일만 팔천송반야』, 『이만오천송반야』, 『십만송반야』, 『금강반야경』, 『반야심경』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반야경』은 대승을 찬양하고, 空性에 대한 설명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이라는 6바라밀 중 반야바라밀의 설명을 위주로 하여 보살의 실천도를 강조한다. 일체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제법실상을 여실하게 아는 것인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체현된 진리가 바로 無所得 空이다. 우리들이 있다고 집착하는 여러 현상이나 사물, 자신의 존재는 고정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무상이고 무아이다. 이것은 무자성이며, 不可得, 不可知한 것이다. 불가득이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집착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보살의 존재 방식으로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다. 보살은 일체 사물에 대해 그 실상을 바로 아는 반야바라밀다인 공관에 근거하여 중생제도에 매진해야 한다.³⁸⁾

중국에서 『반야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은 대월지국 출신의 支婁迦讖이다. 그는 178년에서 183년 사이에 『道行般若經』을 번역했다. 291년에는 無羅叉와 竺叔蘭이 『방광반야경』을 번역하였고, 축법호(竺法護)가 286년에 『光讚般若經』을 번역하였고, 鳩摩羅什(343~413)이 408년에 『소품반야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번역하였다. 北魏의 菩提流支, 陳의 眞諦는 『금강경』을 번역하였고, 현장은 663년에 『대반야경』을 번역하였다. 원광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다양한 종류의 『반야경』이 번역되어 유통 연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원광이 어떤 『반야경』을 주로 연구하고 강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8) 조수동, 『불교사상과 문화』, 세종출판사, 2003, 160쪽.

넷째, 『섭대승론』은 인도의 無着(Asaṅga)이 저술한 것으로 그의 동생 世親(Vasubandhu)은 이것을 주석한 『섭대승론석』을 지었다. 진제는 563년에 『섭대승론』 3권과 세친의 『섭대승론석』 12권을 번역했고, 『攝大乘論義疏』를 지었다. 『섭대승론』은 대승불교의 교리를 섭수하여 그것을 10가지 勝相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먼저 阿黎耶識을 제시하여 일체제법이 이 식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일체제법의 근원은 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識에 의해서 생겨난 일체제법은 依他性, 分別性, 眞實性の 三性を 구유하고 있는데, 의타성인 阿黎耶識으로부터 일체제법이 顯現하면 分別성이 되어 범부의 세계로 나타나고, 그 실상의 세계로 돌아가면 진실성이 된다. 이 진실성에 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목표이다. 그리고 만법유식관과 6바라밀다, 十地, 戒, 定, 慧를 통해 무분별지를 얻고, 得果로서 傳依, 무주처열반과 佛地의 작용으로서 자성신, 변화신, 수용신의 三身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진제 삼장은 제8식 위에 阿摩羅識이라는 九識說을 세우고 있다. 진제는 8식을 진망화합식이라 보고 그 위에 순수청정한 제9식을 세웠다. 진제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여래장사상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九識義記』 2권을 지었다. 진제의 제9아말라식은 無垢識으로 순수 청정한 진어이다. 진제는 유식의 뜻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첫째는 방편유식으로 아뢰야식 외에 다른 경계가 없음을 觀하는 境智兩空을 現得하여 망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正觀唯識으로 생사허망한 識心 및 경계를 다 보내버리고 일체의 모든 청정을 다하여 오직 아마라청정심만 있는 것이다.³⁹⁾ 진제는 또 유식의 삼성설의 설명에 있어 의타성을 染汚의 성질에 중점을 두고 이 의타성이 分別성과 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멸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제의 제자로는 僧愷(518~568), 法泰, 道尼 등 여러 학자가 있다. 법태는 진제 사후 건업으로 가서 『섭대승론』을 강의하였다. 道尼는 590년에 칙령에 따라 장안의 대홍선사에 거주하였고, 그의 제자로는 道岳(568~636), 慧休(548~?) 등이 있다. 曇遷(542~607)도 대홍선사에 주석하면서 섭론학을 전파하였다. 혜원, 혜장, 승휴 등도 이 시대에 활약하였다. 원광은 이 때 장안에서 섭론학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대적으로 추정하면 담천(542~607)에게 『섭대승론』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광에게는 『如來藏私記』 3권, 『大方等如來藏經疏』 1권이 있었다. 책이 실전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여래장경』이나 『승만경』 등의 여래장계 경전을 연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광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여래장 계통의

39) 『十八空論』, 대정 31, 864쪽 상.

경전이 번역되어 있었다. 북량의 曇無讖이 『승만사자후일승방편경』, 중인도 출신의 求那跋陀羅가 436년에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을 번역하였고, 보리유지가 525년에 『부증불감경』, 녹마나제가 『구경일승보성론』을 번역했었다. 『여래장경』, 『승만경』, 『부증불감경』은 이른바 여래장 삼부경이라 일컬어지는 경전이며 『보성론』은 여래장 삼부경을 토대로 여래장사상을 집대성한 논서이다. 이 외에도 『반야경』의 공사상, 『대반열반경』의 불성사상, 일체중생실유불성설, 범신사상, 그리고 진제의 제9식설 등은 모두 여래장사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원광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혜원 등에 의해서 『화엄경』이 이미 연구되고 있었는데, 혜원은 처음부터 여래장설의 수용 위에 『화엄경』을 해석하고 있었다.⁴⁰⁾ 원광이 이들 화엄학자들과 접촉했다면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초기 『화엄경』의 연구자들은 『화엄경』의 범신, 여래지 등을 여래장·불성으로 해석하고 있어 여래장은 범신·여래지가 범부 중생의 성불을 담보하는 근거로서 내면화된 것이다.⁴¹⁾

아울러 원광이 대중교화를 위해 개최한 점찰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선악업보경』 하권의 一實境界의 이론도 여래장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에서는 일실경계를 설명하여 중생의 心體는 본래부터 불생불멸하고 자성청정하고 무장애한 것으로 그 마음을 여래장이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여래장사상은 중생심 안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해탈의 심성으로서 여래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래장 사상은 중생들이 본래 갖고 있는 자성청정심에서 깨달음의 근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범신사상과 붓다의 중생 구제의 자비심을 더하여 수행의 주체인 인간의 본질이 부처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⁴³⁾ 특히 진제 삼장은 여래장사상의 입장에서 아뢰야식을 설명하고 청정무구한 9식설을 주장한다. 원광은 진제의 9식설과 『대반열반경』의 불성사상, 범신사상, 『점찰선악업보경』의 일실경계설 등의 영향 아래 여래장 계통의 경전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여래장사상의 근본경전인 『대방등여래장경』에 대한 주석서와 『여래장사기』를 저술했다고 보인다.

40) 조윤호, 『『화엄경』의 여래장적 해석과 성불론』, 『철학논총』 제67집, 새한철학회, 2012, 401쪽.

41) 조윤호, 『『화엄경』의 여래장적 해석과 성불론』, 『철학논총』 제67집, 새한철학회, 2012, 401쪽.

42) 『점찰선악업보경』, 대정 17, 907쪽 중.

43) 조수동, 『인도철학사』, 이문출판사, 1995, 142쪽.

2) 점찰법회

대승불교의 깊은 교리와 엄격한 자기 수행을 일상생활에 바쁜 일반 민중들이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원광도 신라에 돌아온 후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민중들이 쉽게 자신을 참회하고 불법에 귀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점찰법회는 이렇게 해서 원광에 의해 신라에 도입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원광이 점찰법회를 개최하기 위해 점찰보를 두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原宗이 불교를 부흥시킨 뒤로 비로소 津梁⁴⁴⁾이 설치되었으나 깊은 이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歸戒滅讎하는 법으로 우매한 이를 깨우쳐야 할 것이다. 원광이 살던 가서갑에 占察寶를 두어서 항규로 삼았다. 그 때 시주하던 여승이 점찰보에 받을 바쳤다.⁴⁵⁾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라의 민중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광이 귀계 참회의 방법으로 점찰법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점찰법회는 중국 광주를 중심으로 유행했는데, 원광은 이것을 신라에 전파시켜 가서갑에 점찰보를 두고 점찰법회를 개최하였다. 점찰보는 『占察善惡業報經』에 근거하여 점찰법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원에 설치한 경제적 조직체이다. 점찰법회는 계율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대중교화 조직으로 죄목을 적은 木輪을 던져서 나타난 죄목을 통해 자신의 계행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歸戒滅讎이라 한다. 즉 점찰법회의 목적은 민중들에게 善因善果 惡因苦果의 원리를 심어주어 그들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점찰선악업보경』은 오탁약세의 말세중생을 위해 부처를 대신하여 지장보살이 설법한 것으로 천축삼장 菩提燈이 번역하였다고 한다. 상권에서는 木輪相에 의해서 과거의 선·악업과 현재의 길흉화복을 占察하는 법을 말하고 있고, 하권에서는 대승의 진실한 뜻을 밝히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륜상에 의한 점찰법의 목적은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그 죄를 참회하게 하고, 두려움 많은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데 있다. 즉 목륜상법은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과 업장을 소멸시켜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불법 수행의 한 방편인데, 구체적인 참회법으로 禮敬과 隨喜, 廻向, 發願이 있다. 그리고 하권에서는 一實境界에 의한 信解의 수행을 말하고 있다. 일실경계는 중생들의 마음이 본래 불생불멸하고 자성청정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여래장이며 진제삼장이 주장한

44) 나루터와 다리,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45) 『삼국유사』, 「원광서학」.

제9식인 아말라식과도 같다.

점찰법회가 우매한 민중들에게 歸戒懺悔의 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선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한 종래의 무속적 占卜행위를 『점찰선악업보경』의 점찰법에 의해 불교에 攝化코자 한 의미도 있다.⁴⁶⁾ 『점찰선악업보경』에서 지장보살은 목련상에 의한 점찰법이 세간의 卜筮占相과 다름을 강조하고, 세간의 卜筮에 탐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신라에서는 많은 점찰법회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최되었다.⁴⁷⁾

이상과 같이 점찰법회는 단순한 무속적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참회시켜 善으로 이끌고 불법의 참뜻을 전달하기 위한 대중 집회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占卜 등과 같은 주술적 행위를 금지했지만,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풍속, 문화와 접합하면서 전통사상인 무속을 섭화하고 더 나아가 참회와 계율을 강조하는 점찰법의 수행방법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사회에서도 중생들이 지은 죄악을 참회하고 새로운 죄악을 짓지 않게 하는 참회행사로 이 점찰법회가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되어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었다.

3) 화해정신

『고본 수이전』이나 『해동고승전』에서는 원광이 중국유학을 떠날 때 토속신의 권유와 도움에 의해 유학을 떠나며, 유학에서 돌아 온 후에 토속신에게 대승계를 주었고, 또한 원광이 해룡의 요청에 의해 사찰을 건립하고, 비를 내려준 용녀를 천신이 응징하려고 했을 때 용녀를 보호해준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이야기들은 상징성이 매우 깊으며 전통신앙과 전통신앙, 전통신앙과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아울러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통신앙과 불교를 조화 화해하려는 원광의 화해정신을 볼 수 있다.

먼저 『고본 수이전』의 내용을 살펴보자. 원광이 삼기산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한 비구가 주술을 닦고 있었다. 삼기산의 신이 원광의 수행을 칭찬하고 인근의 주술을 닦는 승려를 비난하면서, 원광으로 하여금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술을 닦는 승려는 그것을 요망한 마귀의 말이라 하여 거절하였는데, 그날 밤 신은 산사태를 일으켜 주술을 닦는 승려를 제거하였다. 늙은 여우가 변신한 토속신은 전통신앙을 상징하는데, 그는 주술을 일삼는 사이비 승

46) 고익진, 같은 책, 136쪽.

47) 『삼국유사』, 「心地繼祖」, 「仙桃山 聖母 隨喜佛事」, 「蛇福不言」,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臺山五萬眞身」, 「진표전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려와 대립 투쟁관계에 있었으며 올바르지 못한 불교수행을 배척 징계하고 있다. 이후 원광은 토속신의 권유와 도움을 받아 중국유학을 떠나게 된다. 원광이 토속신의 권유와 도움을 받아 중국유학을 가는 것은 불교와 전통신앙과의 화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신앙은 불교의 자비와 포용정신에 의해 불교어로 포섭된다.

어느 날 신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보살계를 받아 저승길의 노자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은 이에 보살계를 주고, 그로 인해 세세로 서로 구제하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니 “스님은 먼동이 틀 때 동방을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스님은 큰 팔이 구름을 꿰뚫고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 신이 말하기를 “스님은 내 팔을 보았습니까? 비록 이 몸은 있으나 무상을 면하지 못합니다. 아무 날 아무 곳에서 죽을 것이니 청하옵건대 오셔서 이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은 그 때를 맞추어 가 보았더니 한 마리 털빠진 검은 닭이 가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신이었다.⁴⁸⁾

원광이 중국유학에서 돌아와 토속신에게 계를 주었다는 것은 원광의 불교가 전통신앙을 포섭하고 화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가 전통신앙을 포섭하였다는 것은 종래 전통신앙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불교가 대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교는 전통신앙과 화해하고 그것을 포섭하면서, 그들의 보호 하에 불교의 전래와 토착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불교는 전통신앙 간의 갈등도 불교의 위신력과 포용력, 자비심에 의해서 화해시킨다. 가뭄이 들었을 때 원광이 용녀를 설득하여 비를 내리게 하자 자신의 권능을 침범한 용녀를 벌하려는 상제로부터 용녀를 구해준 이야기가 『해동고승전』에 나온다.

서해의 용녀가 항상 따라다니며 강의를 듣고 있었다. 마침 그 때 큰 가뭄이 들었으므로 스님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나라에 비를 내려주면 다행이겠구나.”라고 하였다. 용녀가 대답하기를 “상제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가 함부로 비를 내리면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어디 빌 곳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내 힘으로 면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갑자기 남산에 아침 무지개가 생기더니 식전 내내 비가 내렸다. 그 때 하늘에서 우뢰소리가 진동하면서 곧 그녀를 벌주려 하였다. 용녀가 위급함을 알리자 스님은 용녀를 강산 밑에 숨기고 경을 강의하였다.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저는 상제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스님이 죄

48) 『해동고승전』, 196쪽.

짓고 도망 온 자를 위해 주관하고 계시므로 명령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면 좋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스님은 뜰 안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변해져 나무가 되었으니 그대는 저것을 때리시오.”라고 하였다. 드디어 배나무를 치고 떠났다. 용녀는 곧 나와서 사례하고 그 나무가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하여 손을 펴서 어루만지니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났다.⁴⁹⁾

용신은 불법을 보호하고 비를 내려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권능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천신이 용신을 징벌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전통신앙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원광은 그러한 용신을 천신의 반감을 사지 않고 불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다.

전통신앙에는 천신, 용신(수신), 산신, 지신, 수목신앙 등이 있다. 이들 중 불교 도입 이전 가장 강한 신앙적 요소는 천신과 수신(용)이었는데, 대개 이들은 고대인들의 수호신이거나 조상신이었다. 이들 전통신앙과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양자는 처음 갈등 관계를 보이지만 이후 상호 교섭을 통해 불교의 위신력과 포용력에 의해서 전통신앙이 불교에 융화되는 경우, 둘째, 전통신앙이 처음부터 불교와 교감, 친화하면서 불교에 포용되어 서로 조화 화합하는 경우가 있다. 전통신앙의 신들이 불교에 포용될 때 그 신들은 불교의 호법신이 된다.⁵⁰⁾ 불교 전래 이전의 지배층은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듯이 집단의 수호신적 존재였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호신적 권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그 수호신적 권능이 직접적으로 집단이나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착실히 수호함에 의해서 집단이나 국가가 수호된다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⁵¹⁾

이러한 내용은 불교가 신라에 전래된 후 각 토착세력이 신앙하고 있던 전통신앙이 불교로 대체되고, 불교를 통해 토착세력 간의 화해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4. 결어

원광에 대한 여러 기록 중 중국유학 후 신라로 돌아온 시기에 대한 기록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유학에 대한 기록은 陳에서의 원광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하면 『속고승전』의 내용이 타당

49) 『해동고승전』, 196쪽. 동일한 내용이 『삼국유사』 「보양이목」 조에도 나오고 있다.

50) 조수동, 「일연의 화회사상」, 『철학논총』 제29집, 새한철학회, 2002, 371쪽.

51) 조수동, 「일연의 화회사상」, 『철학논총』 제29집, 새한철학회, 2002, 371~372쪽.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출생이나 임종, 승려가 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찾기 어렵다.

원광은 중국유학을 통해 대승불교를 신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것은 그 후 많은 신라승들이 중국에 불법을 배우러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귀국한 후 원광의 대표적인 활동은 호국활동과 검찰법회를 통한 대중교화 활동이다. 원광의 호국활동으로는 세속오계, 결사표 등 외교문서 작성과 백고좌 법회 개최 등이 있다. 그는 삼국이 정립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나라에 청병을 요청하는 결사표를 작성하였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속오계를 제정했다. 그는 불법을 보호해야 할 승려이지만 국가가 멸망하면 불교 그 자체도 이 땅에서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결사표 작성은 불교교리보다 조국 신라를 우선시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백고좌 법회는 나라의 지배 계층들을 대상으로 『인왕경』을 강독하는 법회이다. 보살이 佛果와 十地行을 지킴과 같이 호국의 왕이 반야바라밀다를 자기 정신화 하고, 이 경을 수지, 독송, 의해하는 것이 곧 국가를 보살피는 인연이 된다는 것이다. 원광이 내려준 세속오계는 충성, 효도, 신의, 용기, 자비 등의 덕목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다섯 가지의 도리 또는 생활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신라사회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화랑들만의 생활규범이 아닌 신라의 젊은이들의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원광은 중국에서 『성실론』, 『열반경』, 삼장, 수론, 『반야경』, 『섭대승론』 등을 배우고, 아울러 正念과 正定, 覺觀 등의 선정수행을 하였다. 원광은 여래장사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 여래장에 관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 그가 중국에서 수학한 『반야경』의 空, 『열반경』의 법신사상, 불성사상, 실유불성설, 진체의 9식설, 『점찰선악업보경』의 一實境界의 교의 등은 모두 여래장사상과 관련된다. 여래장사상은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해탈의 심성으로서 여래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체 중생은 모두 붓다의 자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점찰법회는 원광이 우매한 민중들을 불교에 귀입시키려는 노력으로 개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점찰법회는 善因善果 惡因惡果의 원리를 민중들에게 심어주어 그들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품고 중생들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편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함이다.⁵²⁾

원광은 불교의 위신력, 관용, 자비정신에 의해 전통신앙 간의 갈등이나 전통신앙과 불교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전통신앙과 불교를 조화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52) 이찬훈, 『『화엄경』 보살사상의 현대적 계승』,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79쪽.

기울이고 있다. 원광이 토속신의 권유와 도움에 의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그를 도와준 토속신에게 계를 주었다는 것은 원광의 불교가 전통신앙을 포섭하고 화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가 전통신앙을 포섭하였다는 것은 종래 전통신앙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불교가 대신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일연, 『삼국유사』
 道宣, 『속고승전』, 대정 50.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不空 역, 대정 8.
 『東域傳燈目錄』, 대정 55.
 『속고승전』, 한글대장경 218, 동국역경원, 2002.
 각훈, 『해동고승전』, 장희옥 역, 민족사, 1994.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권상노 역, 『삼국유사』, 심원사, 1996.
 김동화, 『삼국시대의 불교사상』, 민족문화사, 1999.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7.
 이선근, 『화랑도』, 형설출판사, 1993.
 조수동, 『인도철학사』, 이문출판사, 1995.
 조수동, 『불교사상과 문화』, 세종출판사, 2003.
 강기선, 『『화엄경』 「사제품」에 나타난 사성제의 의미에 대한 분석』, 『철학논총』 제72집, 새한철학회, 2013.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연구』 2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신성현, 『원광의 세속오계에 대한 재고』, 『불교학보』 40,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03.
 이종학, 『원광법사와 세속오계에 대한 신고찰』, 『신라문화』 7,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90.
 이찬훈, 『『화엄경』 보살사상의 현대적 계승』,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조수동, 『일연의 화회사상』, 『철학논총』 제29집, 새한철학회, 2002.
 조윤희, 『『화엄경』의 여래장적 해석과 성불론』, 『철학논총』 제67집, 새한철학회, 2012.
 진광, 『원광법사와 운문사의 인연』,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운문사원광화랑연구소, 2003.
 최연식, 『원광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 12, 1995.

[Abstract]

圓光の護國精神と佛教

曹洙東 (大邱韓醫大)

圓光法師は長い中國留學の後、大乘佛教を本格的に新羅に導入した。彼の新羅における活動は護國活動と大衆教化活動に分けられる。護國活動としては世俗五戒の制定と乞師表などの外交文書の作成、百高座法會開催などがある。世俗五戒は佛教の生命尊重思想を基盤として新羅の若者たち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價值規範といえる。百高座法會は護國經典である『仁王經』を講讀することである。仁王が般若波羅蜜を實踐してこの經を受持、讀誦、義解すれば國家を保衛できるという。

圓光は占察法會を開催して愚昧な民衆を教化しようとした。ここには彼の如來藏思想の影響があると考えられる。如來藏思想は圓光が最も關心を持って研究したことと見られ、2冊の著書を殘した。そして圓光は傳統信仰の間、または佛教と傳統信仰との間の葛藤を佛教の慈悲と寛容の精神によって和諧させている。

キーワード : 圓光, 世俗五戒, 百高座法會, 占察法會, 如來藏思想, 和諧

투 고 일 : 2013년 12월 28일

심 사 일 : 2013년 12월 29일

게재결정일 : 2014년 1월 13일